

여기서 숨고, 대기, 이동하라
여기서 숨고, 대기, 이동하라
여기서 숨고, 대기, 이동하라

그때여 어사 이몽룡 문 밖으로 나가면서
눈 한번 끔적, 부채질 까딱, 발 한번 툭 그르니

병졸들이 눈치를 채고 순식간에 변장을 하는디

비단 벗고 갑옷을 입어라
패랭이를 벗고 몽둥이를 들어
사면에서 우루루루 삼 문을 후닥 딱!
"암행어사 출도야 출도야-"

"이게 무슨 소리? 하늘이 덩석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지는 듯 가슴이 타는구나"

간주 부분

각읍 수령이 뉘을 잃고
혈근 실근 뛰어
떡갈비 입에 물어 뒷간으로 달아나고 던져 먹고 받아먹고

김 사또 모자 잃고 족두리 쓰고 달아날제
이 사또 도포 잃고 보자기 쓰고 달아나고
박 사또 바들바들 술만 처먹더니
다락으로 후다닥 올라가 갓에다가 오줌을 누니
밑에 있던 하인들이 오줌 벼락을 맞으면서
"어푸! 어푸!"
겁결에 하는 말이 "요즘에는 하늘에서 비를 꿇여서 내리나부다"

변 사또 뉘을 잃고 골방으로 들어가다가 쥐구멍에다가 머리를 박고, 쏙!

"갓, 신어 신발 쓰고, 신발 쓰고 갓을 신어
말 한 마리 입고가고 두루마기 타고 가자,
문이 들어온다, 바람을 닫혀라.

요강이 마렵다, 오줌을 들여라
물 마르니 목 좀 나오!"

다시 벌떡 일어나 통인의 목을 부여잡고 "나 없다고 해라."
불쌍하다 관로, 사령, 눈 코 입 귀 박 다 떨어지고 난리 났다-
사령은 나발 잃고 주먹을 쥐어 입에 대고, "흥앵 흥앵-"

사또는 뉘을 잃고 말을 거꾸로 잡아타고, 갈 곳으로는 아니 가고,
그저 어사 계신 곳으로
다그다가 - [말 달리는 소리]
부두둥 달그닥 거리며
축지법 부리듯 간다

후주